

지역 메아리

김제시, 규제 개선 공모전 실시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우천)는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4월 23일까지 '김제시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공모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구현한다.

공모과제는 ▲취업·일자리 애로사항 ▲국민 복지 저해 규제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와 관련된 생활 관련 규제 ▲신산업 ▲창업·일자리·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면 개정

김제시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처리,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김제시는 5월 2일 까지 20일간 시청 민원소통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총 2만4,765필지이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m당 가격을 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 열람하고,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jga.gimje.go.kr) 또는 민원소통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접수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기업애로 청취·모색

업주기업 간담회...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도입 과제 발굴 추진

기업환경 우수지역(경제활동진화성 분야) 1위로 선정된 완주군이 관내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완주군은 완주산업단지 회의실에서 완주일반 산업단지 10개 업체 대표들과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지원 사업 및 규제 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등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이 완주군의 기업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했다.

또한 박서현 법무규제개혁팀장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규제 네거티브 방식도입 과제 발굴'을 비롯해 지역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발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규제 네거티브 방식도입 확산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유·창의를 극대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청취로만 끝나지 않고 해결되도록 완주군의 적극적

인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완주 산단 내 원거리 근로자의 기숙사 지원, 노후 도로 보수 작업, 근로자 고용 지원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완주군은 건의된 사항들을 해당부서 전달해 해결 또는 추진사항을 각 기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및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1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이동 상담실 운영을 본격화해 기업애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완주군, 프로그램 강화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8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공모사업은 웹툰의 창작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최초 공모사업에 선정돼 태블릿 등 웹툰 장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만화 자료실을 조성해 3000여권의 만화도서를 비치했다.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은 올해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웹툰창작 프로그램과 실버세대 대상 만화로 생애기록하기로 웹툰 향유계층을 다양화 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웹툰창작체험관'과 웹툰작가초청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웹툰인식개선 프로그램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으로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소품만들기 체험프로그램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국만화박물관'도 견학할 예정으로 웹툰 및 출판만화 인식개선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존 뉴딜사업 성공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뉴딜사업 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워크숍

김제시는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시 공직자들이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워크숍을 열고,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주요 국

정과제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특색을 살려 재생하여 도시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이다. 김제시는 정부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추진단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존 뉴딜사업 성공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뉴딜사업 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모유수유 간담회 성료

김제시보건소, 이론교육·실습 등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11일 관내 거주 출산부 및 수유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모유수유 간담회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유수유 간담회는 모유수유 중요성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감미로운 배경음악과 아토피 아이에게도 사용하는 천연 오일로 오감자극 베이비 마사지와 스킨쉽 등을 통한 다양한 이론 교육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용지면 거주 다문화 가족인 최예림(4개월)의 아기

엄마 호르보씨는 "타국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있어 엄마와 아기의 정서적 교감 및 베이비 마사지로 성장통 예방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

완주군이 국비를 확보, 주차난을 겪어왔던 고산 상점가에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지역상가 활성화 이

완주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확보해 고산상점가 시장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점포수가 106개 이르는 고산 상점가 인근에는 주차장이 없고, 도로도 2차선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고산 상점가는 고산 자연휴양림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주차난이 극심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국비 5억7000만원, 군비 3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완주군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부지면적 1572㎡, 주차대수 50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한다.

6월 중 시장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이 다시 찾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국 으뜸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도 봉동생강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2017년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